대만의 섬유 업계 - 개발 거점화로 활로 찾아

대만의 섬유 산업도 세계적인 중국품의 공세(攻勢)를 받아, 섬유 산업의 바탕이 가라앉는 게 아닌가하는 말이 조금씩 돌기 시작한 상황에서, 고기능 소재나 환경 배려 소재와 같은 차별화 상품의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다. 동시에 중국 대륙과 경제적으로 제휴하여, 대륙과의 일체화를 무기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구 개발 거점으로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한편 구미 메가 브랜드나 큼직한 SPA(제조 소매업)에게 소재를 공급해 주는 거점으로서 대만도 무시할 수 없다.

대만 섬유 산업의 특색으로서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들 수 있다. 인구가 약 2천 3백만 명으로 적어서 대만 내 시장이 좁고, 따라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럴수록 세계적으로 값싼 중국품이 시장에 넘쳐흐르는 것은 대만 섬유 업계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이제는 대만 내에서 정번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가 사라져 버렸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 기업은 기능 소재와 같은 차별화품을 개발하면서 열심히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 대만방직업척전회(台灣紡織業拓展會)에서는 중국품의 공세가 심하지만, 염색 가공 기술이나 소재 개발력에서는 우리가 한 발 앞서 있다. 이를 살려 차별화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며, 큰 섬유 메이커도 시장에 대하여 이노베이션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만 섬유 산업의 앞날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와 같은 대만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개발로서 죽탄(竹炭)을 나노 레벨까지 분체(粉体)로 가공하여 섬유에 이겨 넣은 죽탄 섬유나, 나노

기술을 응용한 은 코팅 섬유 등의 항균·항취 소재들이 상품화하고 있으며, 방직산업종합연구소(紡織産業綜合硏究所)는 정부와 협력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 이형 단면사를 사용한 흡한 속건 소재나 스트레치 소재도 정번화하고 있다. 케미컬 사이클 폴리에스터나 폴리유산(PLA) 섬유 등의 환경 대응 소재도 상품화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기업이 언어·문화적 공통성이 높아서 일찍부터 대륙으로 진출한 것도 특징이다. 규모가 큰 원동방직(遠東紡織)이나 굉원흥업(宏遠興業)은 모두 중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대부분이 대륙에 공장을 차려놓고 있다. 정번품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과 차별화품 생산과 연구 개발 센터로서의 대만이라는 업무 분담이 업계의 공통 인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대만 내에서 생산을 지키고 있는 기업도 있다. 벨트용 후지(厚地) 직물을 제조하는 충흥직조창(忠興織造廠)은 품위가 좋은 여러 소재들을 해외 유명 브랜드에게 공급하고 있다. 예컨대 코치용 가방의 손잡이 재료는 모두 이 회사 제품이다. 이 회사는 품질과 브랜드력에는 절대 자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섬도사(細纖度絲)로 짠 하이 게이지 니트나 고기능 패브릭 등 유니크한 신상품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흥채실업(興采實業)은 대만 섬유 산업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상담할 때 3시간이면 제품 샘플을 만들어 내는 등 철저한 QR로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 나이키 등 메가 브랜드와의 거래가 많다.

이와 같은 구미 메가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에게 소재를 공급해 주는 거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대만 섬유 산업의 특색이다. 중국품보다도 한층 높은

품질이나 품위와 일본품보다도 우수한 코스트 경쟁력이 대만 섬유 산업의 강점이다.

대만 섬유 산업은 아시아의 섬유 산업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시행 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저력에는 아직도 얕잡아 볼 수 없는 힘이 있다. ♣